

건강하게 사는 약속 인하대병원이 이루어갑니다

인하대 병원

www.inha.com

개원 12주년 기념사 혁신 가능성, 그리고 화합의 아름다움을 희망
의학정보 1 의사의 철학과 환자의 선택, 그리고 사이버나이프
의학정보 2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

Well-being Interview 농사짓는 강릉대학교 이원종 교수

12th Anniversary Since 1996



12th
Anniversary

05·06

2008 May·Jun Vol.69

칭찬의 힘

칼릴 지브란 | 시인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 속에서 자라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 칭찬으로 인하여 사람은
더욱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진실한 의식을 갖춘 영혼은 자신보다 뛰어난
무엇을 발견해 낼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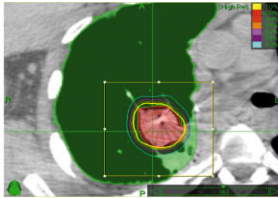
칭찬이란 이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위대하고 훌륭하다.
누군가를 아무리 칭찬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길러라.
그리고 찾아내는 대로 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힘을 길러라.



04	개원 12주년 기념사	혁신 가능성, 그리고 화합의 아름다움을 희망
06	의학정보 1	의사의 철학과 환자의 선택, 그리고 사이버나이프
10	의학정보 2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
12	건강책갈피	수 천 마리의 양과 함께 지새는 밤, 이제는 안녕~
14	119 응급상황	갑자기 열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소아 열성 경련
15	톡톡약물상담	마약성 진통제를 꺼려 통증 참을 필요 없어
16	글이 머무는 풍경 1	인하대병원
17	감사의 글	내 생명 연장해 준, 내 생명의 은인
18	글이 머무는 풍경 2	원무보험팀의 미래는 사방사방한 활력의 봄
20	Well-being Interview	아무 음식 먹으면 운동 소용없고 거친 음식, 가난한 밥상이 건강한 밥상
22	Wonderful World	13세기 대자연을 갖고 있는 몽골로 떠난다!
24	금융정보	글쎄, 건강보험을 따로 내게 되었어요

Contents



06



12



20



22

26	동문탐방	조수신 소아과 / 신통의원
27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30	파랑새소식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 자원봉사 안내
31	Quiz Quiz	퀴즈 퀴즈 제43회
32	알립니다	인사동정, 발전기금, 건강교실 안내, 무료공개 강좌

05 · 06

ASIA - PACIFIC MEDIPORT로의 발돋움 위한 혁신 가능성, 그리고 화합의 아름다움을 희망



친애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취임한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 업무파악에 분주하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느낌입니다. 3월 취임하자마자, 박승림 병원장님과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직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 개정, 사무실 이동배치 등 많은 일들을 마치고, 4월 4일부터 1박 2일 동안 보직자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서 우리 의료원의 경영목표를 재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 등을 추가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추진 과제들에 대한 진도관리와 수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후 그 간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들이었습니다. 첨단 사이버나이프 개소식이 있었고, 협력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으며, 타 병원이 부러워하는 컬러확대내시경 장비를 갖춘 소화기센터의 개소식이 있었고, 부속병원과 의과대학 도서관을 통합하여 정석빌딩 1층에 의학도서관의 개관식을 가졌으며, 장례식장을 리노베이션 및 증축하여 738명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6억 원을 투자하여 460대의 추가 외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와 더불어 지하1층 공간에 750평 규모의 외래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착공은 교통영향 평가를 받은 후 6월말쯤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진료과들의 협조와 양보로 당뇨비만센터의 외래 진료공간 재배치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은 전교직원 여러분의 열정으로 준비한 2007년 의료기관 평가에서 15개 항목 모두 A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500병상이상의 병원 중 23개 병원만이 올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점진적으로 외래환자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또한 9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짧은 2년여 기간 동안에 의료기관평가 등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전교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료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4월 10일에는 우리의 자긍심을 심어준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과정에서 전국 13개 병원이 2차 서류심사를 거쳐 6개 병원이 선정되고, 6개 병원의 현장실사에서 우리 병원이 1등을 하였습니다. 우리 병원 임상시험센터는 134억 원을 5년간 투입하여 임상시험 전용 시설과 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임상시험센터는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후기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만 진료하는 곳이 아니라, 임상시험 등을 통해 연구하는 병원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임상시험연구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수익을 창출시키며, 신약 개발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당뇨-비만 심포지엄, 인하 나노클리닉 심포지엄, 인천 바이오산업 발전 심포지엄 등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하대병원의 위상을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동북아가 아닌 Asia-Pacific 입니다. Asia-Pacific Mediport Forum이 개원 12주년 행사로 5월 28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건산업진흥원, 연세의료원과 우리 의료원의 발표자를 모시고 한국 의료산업과 인하대병원의 비전을 타진하는 포럼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5개국 WSPC(World Society of Pain Clinicians) Expert들을 초청하였으며, 의료관광 컨퍼런스 및 한국의료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방문한 여섯 분의 의료관광 관계자, 미8군 의무부사령관을 비롯한 의료 관계자 세 분, 학계 및 병원계 인사 등 기타 많은 분들이 참석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서 몽골대사관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본 환자유치를 위해 청심국제병원과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NHA는 'Innovation과 Harmony' 입니다. 또한 INHA는 그런 화합과 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혁신의 가능성을 맛보았고 화합의 아름다움을 모두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 자신과 서로간의 내부 친절 중요성을 강조 드리고 싶으며 더 나아가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부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적인 마음이 필요한 간병인, 외부 용역 직원들도 내부 친절의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친애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우리는 Asia-Pacific Mediport로 비상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하의료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인하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인하가족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의식과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흘린 땀만큼 우리의 행복도 커질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개원 12주년을 맞이하여 인하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자축하며 인하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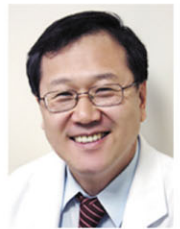
2008년 5월 27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 두 익



다양한 뇌종양의 치료 원칙과 치료 결정은? 의사의 철학과 환자의 선택, 그리고 사이버나이프

CNN방송 중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뇌종양이라는 긴급뉴스를 접했다. 내가 만일 그를 담당한 의사였다면 어떤 치료를 하였을까? 우선 평소 삶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대담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사이버나이프가 환자 치료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환자에게 잘 설명하여 치료 결정에 환자의 철학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의 선택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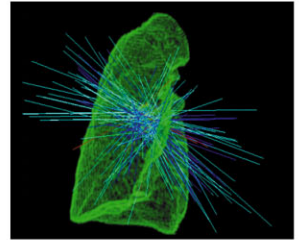


박현선 교수 | 사이버나이프센터 소장 | 신경외과

- 전문분야 : 뇌종양, 뇌혈관기형
- 진료시간 : 월(오전), 화(오전), 수(종일)
- 문의 : 신경외과 ☎032-890-2370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어제 밤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아 머리
맡에 놓인 작은 탁상용 TV를 켰다. 잠이 오지 않을 때
TV를 켜는 것이 나쁜 습관인지 모르겠으나 잠을 청하다
잠이 오지 않을 경우 TV를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잠이 드
는 경우도 많아 필자는 종종 이 방법을 잠들기 위한 방법
으로 선택한다. 물론 너무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이라
든가 요즈음 문제가 되는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은 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잠들기 위한 프로로 가장 좋은 것은
한글 자막이 없는 외국 뉴스 방송이다.
어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CNN 방송을 켜니 또 알듯 모를



듯한 영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편하게 누워 화면을 보는데 아래에 breaking news(긴급 뉴스) 라는 자막이 나오고 Kennedy 라는 이름도 보이고 Brain tumor (뇌종양) 라는 단어도, Seizure(간질 발작)라는 단어가 들리기도 했다. 직업상 낯 익은 단어 들이라서 관심을 갖고 추리를 해보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간질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는데 뇌종양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았다.

케네디 의원은 미국에서는 아직도 VIP 입에 틀림 없는 것이다. 본 뉴스 중간에 그의 발작의 원인이 뇌종양이었다는 것이 긴급 뉴스로 보도 될 정도이니 말이다. 악성 뇌종양이라고 보도 되는 것을 보니 아마 다형교모세포종(Glioblastoma multiforme)이 아니면 악성 성상 세포종(malignant astrocytoma)일 것이다.

뇌에 생기는 종양은 크게 뇌 실질 자체에서 발생하는 축내 종양과 뇌신경계를 싸고 있는 부위 뇌에서 나오는 신경, 뇌하수체 또는 부속물에 생기는 축외 종양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축내 종양 중 가장 흔한 것은 교종(glioma)이며 케네디의원의 다형교모세포종도 이에 속한다.

두개골 열고 종양 제거하는 수술적 적출

내가 만일 그를 담당한 의사였으면 어떤 치료를 하였을까? 나라의 VIP이고 온 국민이 그 치료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보고되는 자료는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치료로 알려져 있다. 케네디의원

의 종양의 위치는 왼쪽의 두정엽이다. 종양의 위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뇌는 위치에 따라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 시야를 담당하는 부위 등이 있어 어느 부위를 수술하느냐에 따라 종양 적출의 범위가 제한되기도 하고 과감한 절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수술로서 얼마나 제거가 될 것이며 주위 중요 뇌조직과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고, 종양 제거 시 예측되는 출혈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종양의 성격을 뇌 MRI를 통하여 확인하려 할 것이다. 종양의 위치를 고려 할 때 아마도 종양 제거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완전 제거가 되더라도 부가적 치료는 필수 적일 것이다. 또한 환자의 나이는 77세의 고령이고 수술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모든 암 수술이 그러하듯이 종양 적출 시 주변의 뇌조직을 가능하면 많이 포함하여 제거할수록 재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뇌조직을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환자는 장애 발생의 확률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술 시 뇌의 mapping을 이용하거나 영상 항법장치를 이용한 최대 적출이 시도되기도 하지만 어느 하나도 환자 예후의 결정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다.

선별적으로 암세포 죽이는 방사선 치료

이런 경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방사선 치료이다. 종양의 주된 종괴를 제거한 뒤 주변의 보이지 않는 암세포의 처리는 방사선으로 하여금 수형케 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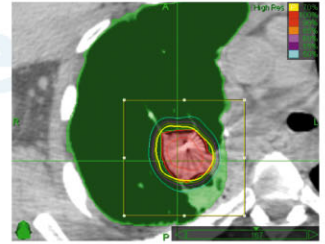
다. 수술로써 그 부분을 제거하려면 암세포를 포함한 정상 뇌조직을 들어내야 하지만 방사선은 그래도 선별적으로 암세포만을 죽이고 정상세포를 살릴 수 있어 그러하다. 하지만 과거의 방사선 치료는 뇌의 많은 부분을 포함시켰으므로 해마와 같이 기억을 담당해 새로운 신진 신경세포가 생성되고 있다고 알려진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환자가 치료 후 치매와 같은 기억 장애와 졸림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의사들이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개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방사선 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등과 같이 뇌의 정해진 부분에 대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기존의 방사선 수술은 고르게 종양 적출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머리에 굵은 핀을 삽입하여 틀을 고정하여 시행해야 하므로 분할치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술 후 고식적 방사선 치료에 비해 뚜렷한 치료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아주 최근에 일보 요코하마 사이버나이프센터와 미국의 스탠포드 사이버나이프센터에서 흥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형 교모세포종 환자의 경우 수술적 완전 혹은 불완전 적출 후에 그 주변부에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만을 하고 다른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그 치료 성적이 RPA class (교모세포종 환자의 진단 시 상태를 나누는 등급) III, IV 환자에 있어 생존율이 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때 34개월, 완전 적출이 된 환자의 경우는 중앙값 36개월이었고, 전체 환자(RPA 등급 III, IV, V 포함)의 2년 생존율이 34%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수술적 적출 후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던 기존 치료법에서의 성적이 RPA class III, IV, V에서 생존율의 중앙값이 각각 17.9개월, 11개월, 8.9개월이었고

Cyberknife Cyberknife Cyber



2년 생존율이 각각 35%, 15%, 6% 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희망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수술 후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temozolomide 란 약물을 병용 투여 하였을 경우 RPA class III, IV, V에서의 2년 생존율이 각각 43.4%, 27.9%, 16.5%, 생존율의 중앙값이 21.4개월, 16.1개월, 10.3개월 이었던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case가 많지 않고, 후향성 연구라는 점에서 해석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수술과 사이버나이프를 조합한 치료 결과가 수술과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조합한 기존의 치료보다 적어도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나이프를 시행하는 경우 뇌의 방사선 조사로 인한 치매, 졸림 현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인 소식임에 틀림 없다. 고식적 방사선 치료는 약 한달 정도가 걸리는 반면 사이버나이프는 하루 또는 5일 이내에 치료를 마칠 수 있다. 기존 방사선 수술에서 이루기 어려웠던 것을 가능하였던 것은 사이버나이프가 병변에 균질

하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고 분할 치료(hypo fractionation)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아닝가 생각된다. 균질한 방사선 조사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고 분할 치료는 정상 뇌세포의 보호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의사의 철학이 환자의 운명 결정?

일반적인 악성 뇌종양의 경우의 치료 원칙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뇌종양의 종류는 아주 다양할 뿐 아니라 종양의 분류와 위치에 따라 그냥 두고 관찰하는 것부터, 수술,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이 단독 또는 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임상 데이터를 고려하면 조직 검사를 위해서도 개두술을 통한 종양 적출은 피해가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케네디는 77세로 환자가 고령임을 고려할 때 단지 어떤 종양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면 뇌정위적 수술(두개골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뇌정위 장치를 이용해 뇌조직을 생검하는 시술)을 통해 뇌조직을 통한 생검 만을 시행하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즈음은 영상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MRI상에서 거의 90% 이상의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뇌정위적 생검을 생략하고 다음 치료과정으로 건너 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역시 사이버나이프 등과 같은 방사선 수술을 포함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등이 병행 혹은 단독으로 사용 될 것이다. 각 치료법의 치료 성적은 길게는 12개월 작게는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치료의 시작 시점에서부터 여러 고민이 시작된다. 물론 치료의 결정권은 환자 자신에게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는 환자 가족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사는 그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환자와 가족들 중에는 의사에게 결정권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과거 어떤 동료 의사와 비슷한 병의 치료방침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었다. 그 의사와 필자는 일부 분야에서 의견을 일치 보지 못하였다. 아마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은 종양자체를 완전하게 제압하는 것과 생존 기간의 연장기간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였고, 한 사람은 종양 자체의 치료와 생존 기간의 연장도 중요하지만 남아 있는 삶의 질에 더욱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당시 동료 의사는 최종 치료방법의 결정은 의사의 철학이 아니겠냐고 토론을 맺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럼 의사의 철학에 의해서 환자의 운명이 결정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수 일전 미래의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병변을 제거하고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직후의 결과가 좋지 않자 환자 가족이 나에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미리 환자에게 충분히 해주지 그랬냐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의사의 철학'이란 말을 떠올리게 된다.

환자가 자신의 삶의 철학이 아닌 타인(의사)의 철학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은 늘 이런 면을 맞대고 생활하는 필자에게 다시 한번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요소이다. 결국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그 보고된 결과들을 잘 해석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고 치료법의 결정에 환자의 철학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된다.

내가 만일 케네디 의원의 치료자였다면 우선 평소 삶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대담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한다. 사이버나이프가 그 환자의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

수면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리는 인생 중 3분의 1을 잠자는 데 소비한다. 육체의 피로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일과 사람에 시달리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충전하기 위해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을 자지 않으면 멍한 머리, 감기는 눈, 주체할 수 없는 피로 등의 증세 이외에 심혈관계 부담, 기억력 훼손, 면역 기능 저하, 신진대사의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윤창호 교수 | 신경과

- 전문분야 : 수면장애, 간질
- 진료시간 : 월(오전), 수(종일)
- 문의 : 신경과 ☎032-890-3860

수면의 역할을 정리하면 휴식(재충전), 기억(학습), 성장, 상처 치유와 면역기능, 심혈관계 기능 등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수면의 역할

휴식(재충전) _수면 중에는 낮 동안 소모한 글리코젠(뇌의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의 저자형태)이 비축되며, 세포 활동에 필수적인 ATP(adenosine triphosphate, 아데노신 삼인산)의 복구되어 다음날 활동을 준비한다. 심장 등 중요 장기에서도 수면 중 활동을 최소화하는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한다. 또한 자율신경계의 경우에도, 깨어 있는 동안에는 주변 자극에 적절히,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교감신경계가 활발히 활동하는 반면, 수면 상태에는 부교감신경계가 상대적으로 활성을 보여 편안한 이완 상태를 유도한다.

기억 _ 낮 시간 동안 보고 듣고 읽고 느끼면서 얻은 정보는 대개 단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중 중요한 정보가 수면 중 장기 기억으로 변환된다. 수면 중에 뇌 속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특정 신경전달물질이 축적됨으로써 이런 일이 가능하다.

성장 _ 갑상선 호르몬이나 코티졸과 같이 우리 몸의 대사를 활성화 시키는 물질들은 낮에 깨어 있을 때 많이 분비되고 수면 중에는 분비 양이 감소한다. 낮 시간 동안 주변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이기고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장 호르몬은 수면 중 특히 수면 초반 2~3시간의 깊은 잠 동안 많은 양이 분비된다.

옛 어른들이 하는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크더라'는 말에는 이런 숨은 잠의 신비가 있다.

면역 기능 _ 수면은 면역기능과 상처 치료에 필요하다.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의 혈액을 조사해보면 정상인에 비해 면역세포들의 수와 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쥐를 이용한 수면 박탈 실험에서도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일주일 이상이 경과하면 많은 쥐들이 죽는데 면역 기능의 저하로 장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대장균들이 유발한 장염이 원인이다.

심혈관계 기능 _ 심장도 수면 중에 휴식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비해 심박수가 감소하고 혈압도 10mmHg 이상 감소한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멍한 머리, 스프르 감기는 눈, 주체할 수 없는 피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초래한다.

갑작스런 밤샘은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_ 코티졸, 아드레날린, 갑상선 호르몬 등의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심혈관계에 부담을 초

래한다.

하루를 꼬박 샌 뒤 운동 등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특히 밤샘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나아가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

밤샘은 기억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_ 수면은 전날 체험 또는 학습한 사실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 답이 생각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운에 맞기고 답을 고르는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 경우가 학습한 내용이 장기기억으로 전환 내지는 공고히 되지 않은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수면은 다음날 효율적인 기억, 판단, 집중력 등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밤 샌 다음날 상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밤샘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 _ 밤샘으로 인해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입 주면 헤르페스 발진이 나는 현상은 흔한 예이다. 수면 박탈은 수면 중 면역기능 강화 효과를 상실케 하며, 신체 내에서 각종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24시간 정도 잠을 자지 않는 경우, 신진 대사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_ 수면 중에 그렐린(ghrelin)이란 식욕 자극 호르몬은 감소되고, 렙틴(leptin)이란 식욕 억제 호르몬이 증가되는데, 잠을 자지 않게 되면 그렐린이 상승하고 렙틴은 감소해서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한창 자랄 나이인 청소년기 수면 박탈은 키 크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_ 야간 수면 중, 특히 수면 초반 깊은 잠 시기에 다량의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 성장을 돕는다. 밤을 새는 경우,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신체 성장이 저해된다. 24시간 정도 잠을 안 잔 뒤, 다음날 12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손해 본 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 보상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2배 이상 늘지도 않고, 성장 속

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 천 마리의 양과 함께 지새는 밤, 이제는 안녕~

I 불면증? 이완 운동으로!

보통 불면증인 사람에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피곤해서 잠이 잘 온다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숙면에 방해가 될 뿐이다. 이런 때는 '이완 운동(Relaxation)'으로 전신의 긴장을 푸는 방법을 권한다.

이완운동

어떤 동작이 좋은가?

- ① 잠자리에 편안하게 눕는다.
- ②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후~'하고 뱉어 낸다.
- ③ '왼쪽 발끝의 긴장이 풀린다.'고 혼잣말을 하며 힘을 완전히 뺀다. 오른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 ④ 무릎, 허벅다리, 팔, 배, 가슴, 어깨 순서로 힘을 뺀다.
- ⑤ 목, 어깨, 머리, 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전신의 피로가 풀리고 초조한 기분이 사라진다.
불면이 해소된다.

Tip 손과 발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 좋다.

Potato Soup

감자우유스프

최근 아미노산이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에는 뇌를 진정해주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우유다. 우유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도 하므로 불면증에는 이상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다.

▶ **재료** : 감자(중) 2개, 우유 1+1/2컵, 소금, 흰 후추, 파마산 치즈 1큰술, 베이컨 2장

▶ 만들기

-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큼직하게 썰어 물에 5분 정도 담갔다 건져 냄비에 담고 물을 자작하게 붓고 소금을 약간 넣어서 센 불에서 삶는다. 끓으면 불을 줄이고 감자가 푹 익을 때까지 삶은 다음 남은 물은 따라 버리고 나머지 수분은 불을 세게 해서 날려 보낸다. 뜨거울 때체에 내려 냄비에 담는다.
- ② 베이컨은 노릇 노릇하게 구워서 종이타월로 기름기를 뺀 후 잘게 다진다.
- ③ ①에 우유를 붓고 약한 불에서 끓인다.
- ④ 파마산치즈를 넣고 녹인 다음 소금과 흰 후추로 간한다.



불면증?
이것이 특효약!

양파껍질차

눈물이 나게 하는 양파의 향 성분의 원인인 황화알릴은 비타민 B1의 체내활성을 촉진시켜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 **재료** : 양파껍질

▶ 만들기

- ① 양파의 바깥 부분에 있는 황토색 껍질을 물로 깨끗이 씻어 잘 건조시킨다.
- ② 물 2.5ℓ 에 양파 껍질 50g을 넣는 것이 기본이고 가정에서는 물 500ml에 양파 2~3개분 정도의 껍질을 넣으면 충분하다.
- ③ 강한 불로 끓인 다음 중불로 줄인다. 3분 정도 끓여 연한 오렌지색의 액체로 우려지면 불을 끈다. 시간 여유가 있을 경우엔 15분 정도 약불로 끓이면 더욱 좋다.

* 독특한 향기가 풍기지만 기본적으로는 냄새도 맛도 별로 느끼지 못하므로 물 대신 마셔도 전혀 부담이 없다. 단, 양파의 흰 부분이 섞이게 되면 양파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불면증 이외에도 양파껍질차는 노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단한 양파껍질차로 불면증, 노화, 살을 동시에 해결해보는 것 어떨까?

발체 · 김필립 | 대외협력실 <출처: 주간조선>

an Onion Soup



갑자기 열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소아 열성 경련 15분 이상 지속되면 병원 처치 필요

하나

우리 아이가 열성 경련을 했는데 위험한 병인가요?

열성 경련은 3개월에서 5세 사이에 소아가 갑자기 열이 발생할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또한 부모들에게 알아보면 가족 중에 열성 경련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하면 부모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며 앞으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며 병원을 오게 됩니다. 열성 경련의 대부분 원인은 감기나 장염 같은 질환에 의해서 열이 갑자기 오르면서 발생하므로 뇌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의 질환과는 무관합니다. 대부분 39도 이상인 경우 발생하지만 38도 전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련의 모습은 눈을 한 곳으로 고정하거나 눈이 돌아가고 입에서 침을 흘릴 수 있으며 손발을 규칙적으로 떨거나 힘을 주며 비트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 일시적으로 호흡 곤란이 오므로 입 주위가 파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경련은 수초에서 10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련 후에는 울면서 깨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멈추므로, 단순 열성 경련은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둘

열성 경련이 재발을 할 까요?

첫 발생이 15개월 미만인 경우, 가족 중에 열성 경련 환자가 있었을 때, 가족 중에 간질 환자가 있을 때, 복합열성경련(15분 이상, 팔이나 다리 중 한 쪽만 경련하는 경우, 하루 2번 이상)이었을 때는 재발을 할 위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열성 경련인 경우도 열이 날 때마다 경련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셋

집에서 열성 경련을 하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단 보호자는 침착한 행동을 보이셔야 합니다. 아이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이 있으면 치워야 합니다. 입안에 침이 고여 있거나, 음식물이 있는 경우, 구토를 한 경우, 얼른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옆에 있는 것부터 조심스럽게 빼내야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깊게 손가락을 입 안에 넣는 것은 보호자도 위험하고(아이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깨물 수 있습니다) 아이도 구강에 손상을 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열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의복을 벗기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서 아이의 몸을 겨드랑이와 몸통, 사타구니 쪽으로 닦아 주면 열이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 밑으로 수건이나 베개를 대주고 고개를 약간 뒤로 젖혀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구토가 나면 아이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배출되게 합니다. 청심환이나 물 같은 것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의 입에 넣는 것은 기도폐쇄를 유발하므로 위험합니다. 가끔 바늘로 손을 따시는 분도 계시나, 청결하지 않는 바늘 때문에 감염이 돼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5분 이내 멈추는데, 15분 이상 지속 시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경련을 하루 2번 이상 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갑니다. 아이가 경련 후 좀 멍한 상태에서는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직장용 해열제를 사용합니다.

넷

열성 경련으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의료진은 아이의 열의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감기나 목감기, 장염, 요로감염증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열이 39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아이가 몹시 아파보이거나, 탈수, 두통 등의 증상이 심하면 몸의 감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시행하고, 가래와 기침이 심한 경우 흉부방사선 검사를 해서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확인하기도 하고 두통이 심하거나 경련이 복합열성경련의 소견을 보이면 뇌척수액 검사도 병행하게 됩니다. 경련 후 의식 소실이 오래되면 뇌 컴퓨터 촬영, MRI 촬영, 뇌파 검사 등을 권유하게 됩니다.



부작용 없이 항암제 복용하는 방법

마약성 진통제를 꺼려 통증 참을 필요 없어



1 항암 치료 기간 중에 홍삼, 버섯이나 영양제를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항암치료 기간 중에는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면역 저하, 장염, 간 기능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측정하기 어렵고 정량할 수 없는 약제는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이나 버섯류 등 자연식품류는 대부분 다양한 성분이 합쳐진 식품입니다. 이 중 어떤 성분은 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몸에 유익한 성분만을 따로 추출해서 복용할 수 없으며 그 용량을 환자에 맞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식품 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치료효과를 떨어뜨리거나 간, 신장 등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작용을 예측하기 힘들므로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암환자의 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는 몸에 안 좋은가요?

보통 경한 통증이 있을 때에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의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만 암의 진행이나 치료에서 오는 심한 통증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마약 중독과는 다른 개념이며 통증 조절로 사용할 때 마약중독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변비나 구역질, 졸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도 함께 처방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더라도 암의 치료에는 전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독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부작용도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마약성 진통제를 꺼려 통증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3 항암제 투여 시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항암제는 일반 정상세포와 달리 급속히 분열, 증식하는 특징을 지닌 세포를 파괴합니다. 머리털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인체의 정상세포 중 빠르게 성장하므로 이러한 항암제의 영향을 받아 탈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털이 빠지는 현상은 머리뿐만 아니라 신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며, 대개 항암치료 후 1~2주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작용은 일시적인 것으로 대개 항암치료가 끝난 후 1~2개월 후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색갈이나 모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탈모를 줄이기 위해 항암치료 중에는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나 스카프를 하는 것이 좋으며 염색이나 파마 등은 삼가야 합니다.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3327 | 야간 032) 890-3315

인하대병원

글 · 양근석 님

인하대병원 12층 신경과 병동에 가면
 인천 항구가 보인다.
 갑문을 향해 진행하는 배들을
 보면 서있고 뒤돌아보면 가는
 시간 차 공격처럼 서해로 빠져 나간다.

인천 항구에 등대처럼 떠 있는 푸른 섬
 항해의 마지막과 도로의 시작에 떠 있는 푸른 섬
 푸른 섬을 출발하고 푸른 섬에 도착하듯이
 삶을 연장시켜 달라하고, 연장하고, 연장하지 못하고
 갑문을 빠져나가고, 갑문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인하대병원 1층 로비에는
 도착하는 배들과 떠나가는 배들이
 무수히 정박해 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선원들은 배를 출발시키기 위해
 분주하고
 우리는 모두 인하대병원 1층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시간 차 공격처럼 서해로 빠져 나간다.



We hope he's feeling better

인하대병원 12층 병동에 입원하셨던 양근석님께서
 병원 창문 밖 인천항의 풍경과 입퇴원 하는 환우들의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양근석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의료진에게 나는 충실한 환자 내 생명 연장해 준, 내 생명의 은인

글 · 권봉문 님

나뿐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가 평소에는 병원이 어떤 곳인지도 모를 정도로 건강하고 아무런 탈 없이 지냈기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고 가족의 그런 건강함에 늘 감사하고 있었는데……. 내 나이 60이라지만 마음은 늘 청춘이었고 병원이라는 곳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2008년 1월 허리가 아프고 머리도 아파 가까운 정형외과에 들러 치료를 해 보았지만 아무런 나아짐이 없어 인하여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았다. 검진 결과는 “다발성골수종”이라는 10만 명 중 한 명이 발병한다는 혈액 암! 정말 믿기 어려운 병마가 내게로 이미 와있다는 결과였다. 검진 내내 나 몰래 가슴 조이는 딸아이들의 눈물은 당사자인 나를 더욱 강한 아버지로 자극해왔다. 아이들 앞에서 나는 아주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였고 얼핏 어느 곳에서 이 병의 새로운 치료제가 임상 실험을 거치고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는 걸 들었다. 조용히 주치의이신 이현규 선생님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 및 환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 사항에 대하여 의논하고 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다.

인터넷에서 다발골수종에 관한 정보도 접해보고 치료 방법에 대한 사례도 읽어보았다. 나를 치료, 간호해 줄 의료진에게 나는 충실한 환자가 될 것이고 항암주사나 약물에 따른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있겠지만 새로운 내 인생을 얻는 것에 대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생각하고 준비했다. 그만큼 것쯤이야 내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냈듯이 또 부지기수 넘겨왔듯이 ‘이 병마와도 한 번 승부해보자’라는 오기도 발동했다. 아직은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인생의 황혼기를 잘 정리하면서 내 가족들에게는 중심이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병원 생활은 나에게 많은 새로운 건강개념을 갖게 하였고 차분한 기다림과 인내로 주의사항을 지켜가며 쾌차해가는 보람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에 늘 감사하고 고맙게 느끼며 ‘다행이구나’ 하는 마음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동감으로 느끼고 있다. 내가 만약 이 투병 과정을 마치고 완쾌되는 날 지금 생각하기에는 고마우신 모든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시를 꼭 해주리라 다짐한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주기 위해 수고해주신 그 분들은 내 생명의 은인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족 이외의 모든 친지들에게는 나의 투병 생활을 숨기고 있다. 하루빨리 완치되어 옛날의 건강함으로 돌아가 언제 환자였느냐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꼭 돌아갈 것이고, 오직 투병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현규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로 현재 3차 치료를 마치고 4차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다. 중간 검사 결과 혈액 수치는 거의 정상으로 좋아졌다는 선생님의 격려 말씀은 이 세상 어떤 말보다 힘이 솟아나게 하였다. 아드리아 마이신을 96시간 연거푸 투여할 때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따르지만 이 과정이 완치로 가는 과정이기엔 감수하고 이기고 있다.

인간의 병마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실험을 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의료인들의 고귀한 업적에 환자인 나는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린다. 나를 치료해 주신 의료진에 보람을 느끼게 하고 완쾌를 염원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어서 빨리 가고 싶다.

2008년 5월 서17병동에서 권 봉 문

* 권봉문 님은 인하대병원에 4차 항암치료 위해 입원하셨습니다.



춘계 야유회를 다녀와서.....

원무보험팀의 미래는 사방사방한 활력의 봄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맞는 근로자의 날, 우리 원무보험팀에서는 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 도모를 위한 야유회를 다녀왔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되어 화려한 녹색으로 변해버린 싱그러운 자연의 바람을 맞으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스스로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자연처럼 우리 원무보험팀도 더 튼 감동을 주는 즐거운 미래를 상상해 본다.

春 ;

정석두 | 원무보험팀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근로자의 날이어서 그런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인하대병원 원무보험팀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을 맞이하여 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 도모를 위하여 인천대공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매일 아침 입어야했던 정장 차림 대신에 청바지에 면티를 입고 직장 선배님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묘한 설레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조인하 대리님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집결지인 인천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막혀만 있게 해서 미안했었던 걸 보답이라도 하듯 경인고속도로도 우리의 갈 길을 시원스럽게 뚫어 놓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반가운 얼굴들이 속속 집결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매일 병원 사무실에서 정장에 넥타이를 한 모습만 보다가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팀장님과 청바지에 면티를 입은 과장님의 모습을 보니 더욱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작년 학교 축제 때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텐데”라고 외치던 DJ.DOC의 창렬이 형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원무보험팀의 야유회는 소래산 등반으로 그 첫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험준하지 않기로 소문난 그 이름답게 소래산은 우리에게 가벼운 등산 코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타 본 것을 마지막으로 등산과 인연을 끊고 있던 저에게는 살짝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영양가 있는 등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래산 정상에 올라서는 마치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듯이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기념촬영도 하였습니다.

등산을 마친 후 ‘초원에서’의 점심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야유회의 점심메뉴는 닭백숙과 매콤한 닭볶음탕이었습니다. 막 등산을 마친 후라 허기가 저있던 제게 그 날의 그 닭들은 최고의 점심 메뉴였습니다.



필자 : 우측에서 두 번째



다. 그리고 닭죽과 열무국수, 해물과전 또한 별미 중의 별미였습니다. 산들산을 불어오는 봄바람과 따사롭게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초원을 바라보며 가졌던 야유회 때의 점심 식사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야유회의 오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성인 남자들 여럿이 모였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신나는 놀이, 바로 족구였습니다. 4:4로 편이 나뉘고 이경우 과장님과 신영숙 대리님의 공동심판 지휘 하에 곧 즐거운 족구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공격적으로 해보려는 심산에 자신 있게 오른쪽 공격수 위치에 섰는데, 분명 MBC ESPN에서 선수들의 게임하는 모습을 볼 때는 쉬워보였으나 오랜만에 하는 게임이라 그런지 자꾸 발이 꼬이면서 말을 안 듣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김종철 과장님의 멋진 스파이크만 실컷 감상하다가 족구 게임을 마쳐야 했습니다. 족구가 끝나고는 피구와 2인 1조 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한 후, 시원한 수박과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으로 2008년도 춘계 야유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한겨울이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 날리던 눈방울도 멋있었지만 화려한 녹색으로 변해버린 봄의 싱그러움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연은 스스로의 모습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변화하여 새롭게 변화된 고객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우리 인하대병원 원무보현팀의 즐거운 미래를 상상해봅니다.

아무 음식 먹으면 무조건 소염이 된다
거친 음식, 가난한 밥상이 건강한 밥상이다



지난해 겨울 세계의 장수마을을 아내와 함께 배낭여행으로 마치고 돌아온 농사짓는 교수로 유명한 이원종 교수를 만났다. 소박하면서 거친 음식이 가져다주는 가난한 밥상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그는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로 차려진 가난한 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즘 근황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마을인 오키나와, 훈자, 빌카밤바, 불가리아 등을 돌아보고 그 곳 사람들의 건강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지난겨울 장수마을 여행을 다녀오셨죠?

몇 년 전 '위기의 식탁을 구하는 거친 음식'이라는 책을 출판한 이래 장수마을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나

오는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사실을 인터넷 블로그, 강연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장수마을에 직접 제가 가보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아내와 배낭을 메고 떠났습니다. 남미의 빌카밤바, 이탈리아의 사르데니아 섬, 캄포디멜라, 프랑스의 남부 지역, 중국의 바마 장수마을 등을 찾았습니다.

장수마을 중 인상적인 곳은 어디가요? 프랑스에서는 100세가 넘는 노부부를 만나보고 '장수의 기쁨이란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나 고통 없이 건강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빌카밤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누구든지 그 곳

에 한 달 만 머무른다면 급한 성격을 고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던데요.

교수님께서도 직접 농사도 지으시죠? 18년 전 둘째
아이 유치원 때 캐나다에 일 년간 교환교수로 갔습니
다. 그 때 몸이 약해 항상 약봉지를 달고 다니던 아이
가 캐나다에서는 땅을 밟고 지내다보니 건강해졌죠.
그 이후 귀국하여 현재 살고 있는 농가주택으로 이사
를 하게 된 겁니다.

대학 교수로 농사짓는 농부(?)의 이중 삶으로, 두 배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15평에 불과한 함석지붕과 창호
지문인 집에서 17년 동안 사는 것이 쉽진 않죠. 2시간
에 버스가 한 대 씩 오니 아이들의 학교 등교 역시 만
만치 않습니다. 농사일은 30년 전에 미국 유학시절
텃밭을 가꾼 경험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지요. 몸은
조금 고단하지만 직접 길러 먹는 기쁨이 있어 지금까
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예전
에는 콜레스테롤함량이 높았는데, 농가
주택에 살면서 많이 움직이다보니 자연
스럽게 운동이 되나 봅니다. 지금은 건
강검진에서도 별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20방법이 내 건강 노하우

‘알고 먹으면 보약, 모르고 먹으면 독

약, ‘위기의 식탁을 구하는 거친 음식’에 이어 가난한
밥상이라는 책도 출간하셨다죠? 18년 동안 농가주택
에 살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한 경험담을 많은 사람
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먹을거리
로 가난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얼
마나 중요한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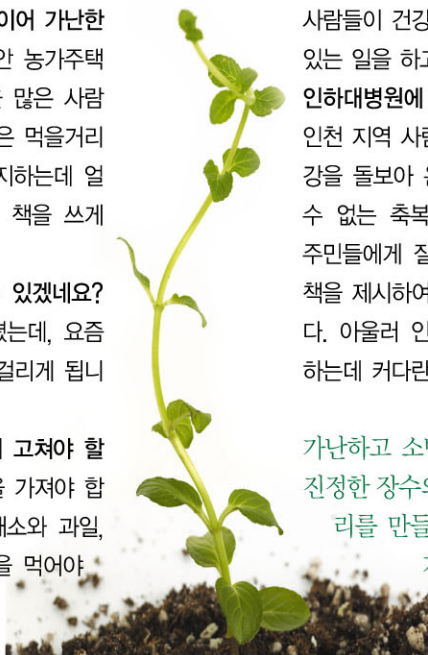
가난한 밥상이 곧 건강한 밥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요즘
에는 지나치게 먹어 ‘배부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
다. 조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건강한 밥상을 위해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자연에 순응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합
니다.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찾지 말고 채소와 과일,
현미, 잡곡, 고구마, 해조류 등 거친 음식을 먹어야
만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
습니다.

질병이 나고 통없이 건강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
장수의 기쁨이란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밭카밭바에서 아고스틴 106세 할아버지와 함께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다면요?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일을 하거나 책을 씁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일부
러 운동을 하거나 걸어야 해요. 식사시간도 20분 이
상, 또 한 입에 최소한 20번 이상 씹습니다. 천천히
먹어야 먹는 즐거움도 느끼고 소화도 잘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식습관과 운동, 어느 쪽이 중요할까
요? 좋은 먹을거리를 먹으며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무 음식이나 많이 먹으면 운동을 해도 소용없죠. 그
런 면에서 식습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유기농식품,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
야 하는 걸까요? 농가주택에 살면서 자연스레 유기농
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킨 셈이죠.
도시에서 직접 재배해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농약
을 적게 뿌린 저 농약 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을 사먹
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에게 건강한 삶을 위해 꼭 들려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장수하
는 사람의 삶의 지혜는 배워야 합니
다. 어렵게 살고 있지만 과식하지 않
고 절제하는 모습, 나이가 많아도 누
구에게 의지 않고 몸을 움직여 살아가
는 모습을 배워야 하는 거죠.

향후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국내
외의 더 많은 장수 마을을 돌아보고
장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하대병원에 전하는 메시지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인천 지역 사람들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건
강을 돌보아 온 인하대병원인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질병의 예방교육에 힘쓰고 근본적인 치료
책을 제시하여 더욱 사랑받는 병원이 되기를 기대합니
다. 아울러 인하대병원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장수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길 기원합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이원종 교수의 밥상은 생명력과
진정한 장수의 의미가 있다. 오염되지 않은 먹을거
리를 만들어 내는 그의 허름한 농가와 거칠고
가난한 밥상에서는 오히려 건강한 흙
냄새가 난다.

글·이정희 | 자유기고가

일 년 중 가장 온화하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 6월 ~ 9월까지를 몽골 여행의 최적기로 꼽지만 특히 몽골 초원의 작은 올림픽인 나담축제가 있는 7월과 8월은 각국의 관광객이 한번에 몰려드는 기간이다. 청명한 하늘, 소박한 자연 속에 일상을 벗어나 어우러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몽골'이다.

바람과 구름, 땅 그리고 사막의 고향 13세기 대자연을 갖고 있는 몽골로 떠난다!

홉스골 호수

한국인에게 몽골이라는 이름은 항상 칭기즈칸, 고비사막, 대초원과 동의어이다. 한반도의 7배 정도의 넓이, 평균고도 1580m인 고원 국가이다. 북쪽은 초원, 남쪽은 사막, 드문드문 호수가 위치한 몽골은 그야말로 단순하다.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또 가장 큰 매력이라고 몽골을 다녀온 사람들은 말한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어디를 가든 펼쳐진 푸른 초원, 밀바닥이 손에 잡힐 듯이 흰히 보이는 수정 같은 호수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몽골의 모습이다. 하라호름, 테렐지 국립공원, 홉스골 호수, 그리고 고비사막 등 몽골의 정취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여행지를 추천한다.

몽골의 옛 수도인 하라호름

울란바토르에서 400킬로미터 떨어진 곳, 버스로는 8시간, 지프차로는 6시간 걸린다. 제2대 왕 어거데이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청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이 폐허 위에 1586년 티베트의 건축양식으로 한쪽씩 400미터의 라마사원이 세워졌다. 이 사원의 이름이 바로 '에르덴쥬' 사원이다. 당대 몽골 라마교의 중심지뿐만 여명의 라마승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몽골 라마교의 생불로 추앙 받았던 잔바자르의 유품과 사리가 소장되어있다. 1930년대 민족주의 말살정책에 의해 폐쇄되었으나 현재 관광객을 위하여 다시 문을 열고 여러 가지 불교행사를 하고 있으며 몽골 역

사의 모습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 하라호름까지의 길은 포장도로라 1박2일로 구경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며 주위에 관광객들을 위한 게르(몽골의 전통가옥)촌이 형성되어있고 식수와 식당들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울란바토르에서 이곳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흠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도중의 관광지에서 하루를 묵고 오는 경우가 많다.

밤하늘의 별이 자랑인 테렐지 국립공원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동쪽으로 78km떨어진 곳에 위치한 관광의 명소이다. 기암괴석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관

광객은 물론 몽골현지인들도 여름이면 자주 찾는 곳이다. 맑은 공기와 밤하늘의 별은 이곳의 자랑거리이며 특히 몽골의 전통음식인 허르릭이나 버터를 맛볼 수 있다.

관광객을 위한 모든 편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몽골의 전통가옥인 게르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기에 좋다. 승마는 시간당 5\$ 정도이고 두 시간 정도를 타면 이 근처의 아름다운 경치를 돌아볼 수 있다. 말을 못 탄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몽골현지인들이 앞에서 말을 끌어주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만 있으면 된다. 게르 이용료는 하루에 15\$ 가량이고 식사는 포함된 가격이 아니다.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흡스골 호수

울란바토르에서 600km 거리에 있는 몽골의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 세계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맑은 호수로 몽골의 가장 신비로운 곳이라 할 만큼 사시사철 경이로움과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다.

흡스골의 크기는 보기 전까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호수인데 한국의 경상남북도만하고 주변은 울창한 침엽수로 둘러싸여 있다.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구비되어 있고 식사가 포함된 게르의 이용료는 일인당 하루에 35\$정도이다.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프로펠러 비행기로 1시간 40분 정도 날아간다. 비

행기 값은 140\$정도로 비교적 비싼 편이다.

낙시와 승마 보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로 먹어도 좋은 은어가 서식하고 있어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가



나담축제

격이 비싸 큰마음을 먹지 않고는 가기 힘든 곳이다. 이 곳 또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한 서비스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할 소지가 있는 곳이라 사전 꼼꼼한 정보가 필요하다. 가이드와 동행을 하는 것이 좋는데 개인이 가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현지에서 OK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몽골은 지방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현지에서 가서 OK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사막풍경의 진수 고비사막

한국인들은 누구나 몽골하면 연상하는 것이 고비사막일 것이다. 몽골의 전형적인 사막풍경과 초원, 전형적인 모래 둔덕,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수려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고비사막은 전 몽골국토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고비사막 관광객 휴양지는 5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9월에 철수 한다.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여러 편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얼음계곡(여름에도 얼음이 있는 계곡), 모래둔덕, 신기루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외에도 역사와 관련된 물품을 전시하는 역사박물관, 동식물, 광물과 공룡의 화석 등을 전시하는 자연사 박물관, 라마불교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잔바자르 예술 박물관, 울란바토르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이승 승전기념 전망대, 몽골 마지막 황제 복드왕의 주치의였던 이태준 선생기념관, 17세기에 설립된 울란바토르 시내의 간단사원 등이 몽골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둘러 봐야 할 곳이다.

몽골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7월과 8월이다. 하지만 성수기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행일정을 서둘러야 한다. 소박한 감동을 자아내는 몽골의 13세기 대자연 속, 때 묻지 않은 질푸른 아름다움에 온전히 빠져보자.

자료제공 : 몽골관광청(www.discovermongolia.co.kr, ☎02-2277-5078)



1 테렐지 국립공원
2 고비사막
3 하라호름 사원



A PIECE OF FINANCE

글쎄, 건강보험을 따로 내게 되었어요

펀드 결산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전업주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 달 전에 개포동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인 제 고객은 2008년부터 남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빠져 따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생겼는데 이 때문에 몹시 흥분해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 2007년도 해외투자재간접투자신탁의 결산 배당 수익이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다 공교롭게도 지난 12월말자로 2STAR ELSF의 조기상환으로 과세 대상 수익이 1천8백만원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입

니다. 그 고객은 자신이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8천만원 정도 이내라면 이자수익을 얻었을 때 소득세와 주민세 15.4% 원천징수된 것 외에 더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넘으면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사실 이 고객처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8천만원 정도 이내라면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지난 2006년 12월부터 바뀐 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게 되면 사업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배우자와는 별도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명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 기타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 기타 재산 소득과 합산되어 책정됩니다.

제 고객은 지난해까지는 남편의 건강보험료 납부로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08년부터 매월 약 24만원 정도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펀드의 결산이란?

자,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관계를 아셨다면, 다음은 펀드의 결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제 고객은 해외투자 재간접투자신탁의 결산 배당수익이 5천만원을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펀드는 매년 그 펀드 설정일을 기준으로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펀드 기준 가격을 1,000원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결산' 혹은 '재투자' 라고 합니다.

만일 그 펀드 운용 실적이 좋았다면 펀드 기준가격은 1,000원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 높은 기준가격을 1,000원으로 돌리는 대신에 그 만큼의 좌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주식형펀드 중 수익이 높게 나온 펀드 통장을 열어보시면, 펀드 결산 전에 비해 잔고좌수가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산 전 기준가가 1,500원에 보유좌수가 1,000좌였다면, 결산 후에는 1,000원으로 되면서 1,500좌가 되는 것이지요. 즉, 결산 후 펀드 평가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가격은 주식거래 차익 뿐만 아니라, 편입된 주식의 배당금, 파생상품과 관련된 차익 등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서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의 신탁보수와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아울러, 펀드 기준가는 주식 매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반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해외투자펀드는 비과세 된다는데?

해외투자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펀드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 사례에서 제 고객은 '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 고객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27조에 해당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소득으로 구분되어 투자수익의 비과세를 규정한 동 법 17조의 수익 분배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 시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구분하여 말씀 드리자면, 펀드 명 끝이 '재간접투자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이고, 그냥 '주식투자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투자펀드 중에 주식투자신탁과 재간접투자신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만일 보유하고 계신 재간접투자신탁 중 앞으로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은 실현한 수익률과 결산일 등으로 검토하여 부분 환매 후 비과세 펀드상품으로 재 배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례로 말씀 드린 제 고객의 두 번째 예처럼 역시 주가지수연계 혹은 특정주가지수연계채권형펀드(ELSF)도 그 펀드가 규정한 조기상환 충족 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ELSF 상품에 투자하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인하대병원 하나은행 차장 한충현(032-889-1111)

▶자료제공 : 목동하나은행 골드클럽 센터장 이희도



펀드 명 끝이 '재간접투자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이고, 그냥 '주식투자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수신 소아과 _ 조수신 원장

지난 3월 17일 개원한 조수신 소아과의 진료실은 캐릭터 쿠션 등으로 아늑한 소아과 분위기를 한껏 낸 인테리어가 이색적이다. 최고로 실력이 좋은 의사, 또 명의보다는 가장 자세하고 친절한 '의사'가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는 조수신 원장을 만났다. 자신을 찾는 환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가는지, 아쉬움은 없는지를 살피며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 원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전문 진료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또 사용하는 특이한 장비 중의 하나가 바로 카메라이다. 증상에 따른 처방과 나타나는 병증을 기록해 놓기 위해 직접 촬영하여 진료기록으로 남겨둔다. 이는 추적치료를 하기위한 방법이란단.

아토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치료에 대하여 조 원장은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을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다. 또 내원하는 이들에게 자료제공은 물론 도움이 되는 그림과 설명, 그리고 도표 등을 조 원장 자신이 직접 그려 이해를 돕고 있다. 그래서 항상 진찰실에는 각종 자료들을 준비해 놓고 필요하면 언제나 건네준다.

개원 한 달을 막 지낸 조수신 소아과는 멀리서 찾는 이들이 있어 나름 북적대는 개원을 맞이하였다. 조 원장이 소아과 과장으로 있던 서울여성병원에서 인연을 맺은 그들이 장본인이었다.

모교인 인하대병원이 대학병원다운 과감한 투자와 환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또 인하대병원의 발전이야말로 선배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는 일이라고 조 원장은 말한다. 환자들의 이름을 기억해주라고 간호사들에게 주문하는 조 원장, 때로는 환자를 위하여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본다는 그이다. 또 늘 응급으로 갈 수 있는 소아과의 특성상 일요일도 잠시 문을 열어 진료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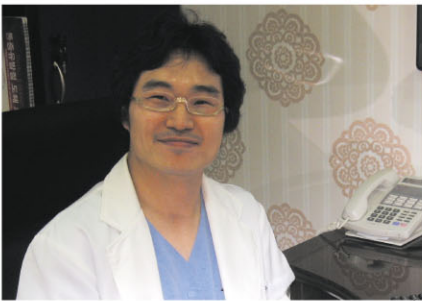
규모 있는 전문 소아과 운영을 향후 계획으로 말하는 조 원장의 얼굴에는 밝은 미래가 담겨있다.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 032-433-7175



가장 자세하고
친절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신통의원 _ 정주환 원장



한 번을 찾아도
신통하게 잘 듣길
바라는 마음

지난 4월 5일 정주환 원장은 만성통증과 관절질환, 척추질환, 재활 클리닉 등 근골격계 치료와 관련 있는 신통의원을 개원하였다.

정 원장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인천에서 손꼽히는 3대 서민층 지역 중의 하나라는 것 때문이다. 재개발 지역이고 낙후되어 있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병을 키워서 와야 하고, 맘 놓고 병원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 원장으로 하여금 발길을 달게 했다. "한 번을 와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여차피 생활 병이고 직업병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 바로 정 원장의 보람이다. 자세하게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 원장의 마음은 규모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아픈 곳을 찾아 제대로 치료해주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사실 정 원장의 이러한 마인드는 익숙하다. 인하대의대 총동문회 활동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름 의미를 갖고 4월 5일 개원한 정 원장이 이끄는 신통의원, 좋은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 또 나무는 오랫동안 가꾸어서 먼 앞을 내대보고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정 원장은 아주 먼 훗날까지 이 동네 사람 같은 자신과 신통의원으로 남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한다.

정 원장은 서쪽지역에서 유일하게 20년을 지켜온 자신의 모교인 인하대병원이 어머니 같은 소임을 다하길 기대한다. 또 경영의 적극적인 투자와 비전으로 인천 경기 서부 지역의 대부, 대모로서 자부심을 갖고 안을 수 있는 가장 큰 집이 되었음 하는 바람도 전한다.

환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직원이란 말을 주문하는 정 원장 그는 외형적으로 커지는 병원기보다 동네에서 가정집같이 찾아주는 병원이고 싶어 한다. 듣기 좋고 기분 좋은 '신통', 신통하게 빨리 잘 치료되길 바라는 정 원장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길.....

● 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 032-205-8282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인하대병원 개원 12주년 행사



인하대병원은 5월 27일 개원 12주년을 맞아 3층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근속 및 모범직원에게 대한 표창이 있었다. 이날 오전 병원 현관에서 박승림 병원장, 김준식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총무

팀 직원들이 택시기사들에게 개원기념일 맞이하여 만든 떡과 음료를 나누어 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의학도서관 개소 ●

4월 1일 정석빌딩 1층에서 의학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서 이본수 인하대학교 부총장, 이두익 의료원장의 축사와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의학도서관에는 약 11,000여 권의 의학관련 책을 소장하고 있다.

소화기센터 개소

인하대병원은 지난 4월 7일 병원 3층에 지역주민의 소화기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소화기센터를 개소했다. 소화기센터는 소화기질환, 간질환, 담체관질환을 진료하는 외래진료실과 최신 장비를 갖춘 내시경검사실이 하나로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진료실과 검사실에 같은 공간에 위치해 같은 날 진료부터 검사까지 가능하며 안전관리 전문간호사도 배치돼 있어 수면내시경 시 호흡곤란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센터는 HDTV 이미지를 가진 내시경장비와 전자식 칼라 도플러 영상이 가능한 내시경 초음파장비인 ALOKA α-10 등을 갖추고 있다.

청심국제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

4월 21일 본원과 청심국제병원이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본원 박승림 병원장과 청심국제병원 차상협 병원장은 협력병원 협약을 맺고 향후 환자 연계진료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몽골대사관과 지정협약체결 ●●●

5월 8일 몽골대사관에서 몽골대사관과 지정병원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이두익 의료원장, 김석규 경영부원장, 김준식 진료부원장 등 본원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몽골대사관에서는 대사와 관계자가 참석하여 몽골인에 대해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본원에서 제공하고, 몽골대사관은 본원의 몽골봉사 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인하대병원 인천지역 최초 지역임상시험센터 최종 선정

인하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이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최종 선정됐다. 이들 3개 병원은 각 병원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0억원 이내로, 최대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단장·신상구·서울의대)은 5월 9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지역임상시험센터는 올해 선정한 3개 센터를 포함해 모두 12개가 됐다. 사업단은 내년에 추가로 3개 센터를 더 선정, 전국에 총 15개 지역임상시험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역임상시험센터 공모에는 13개 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지원했다. 사업단은 서면평가, 구두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3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임상시험센터는 2004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사업으로 현재 9개 병원(서울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연세의료원, 전남대병원, 아주대의료원, 경북대병원, 가톨릭의료원, 전북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인하대병원, 복지부 의료평가 전 부문 '최우수'

인하대병원(병원장·박승림) 등 경인지역의 7개 종합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가항목 전 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전국 8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의료기관 평가에서 인하대병원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명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7개 병원을 15개 평가부문 최고 등급 병원으로 선정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86개 종합병원 중 40.7%에 해당하는 35개 종합병원이 전부문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의료기관 평가는 진료와 운영체계를 비롯 부서별 업무성과, 임상질 지표, 환자 만족도 등 4개 영역에 15개 부문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와 약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병원을 직접 방문 조사하도록 했으며, 환자 만족도 조사는 입원·외래를 이용했던 환자 중 표본 추출하여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됐다.

인천지역 바이오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 -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기념

5월 21일 인하대병원은 하얏트 리젠시 인천호텔에서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을 기념, 의료산업화와 지역임상시험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경제자유구역청 하정배 박사의 '인천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현황 및 비전', 연세대 지역임상시험센터 박민수 교수의 '신약개발 및 첨단진료에서의 임상시험센터의 역할'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며, 본원 임상시험센터 소장 남문석 교수는 센터 선정 경과보고 및 비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대내외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 축하의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제 5회 QI 학술대회 개최

5월 26일 13시부터 병원 3층 강당에서 제 5회 QI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총 11개 팀의 2007년도 Q.I. 구연발표와, 2006년도 Q.I. Feedback 우수부서 경과보고가 있었다. 최우수상은 '비위관영양 수술 표준 지침 개발 및 적용효과'의 동12병동이 선정되었다. 그 외에 Good Presentation 과 Charming Slide 부문이 신설되어 회복실/마취통증의학과, 집중치료실에 추가수상의 영예가 주어졌다.

Inha News

장례식장 새 단장 오픈 ●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이 5개월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5월 27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하대병원 장례예식장은 지상 1층과 지하2층 2개 층의 규모에 8개 빈소를 초현대식 고품격 인테리어로 새 단장 하였다. 8개 각 빈소에는 문상객 음식접대를 위한 주방과 접객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상주 전용 휴게실 안에는 샤워시설,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갖추었고, 특히 지하2층 특실에는 별도의 응접실과 침실이 마련되어 있다.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보다 양질의 장례용품과 음식을 제공하며, 최상의 서비스로 대학병원으로서 장례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개원기념 국제의료포럼 개최 ●●

인하대병원은 5월 28일 하얏트리젠시인천에서 개원기념 Asia-Pacific Mediport Forum을 개최하였다.

지정학적 이점과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병원으로 변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료중심이 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귀빈과 협력병원, 의료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제 6회 당뇨인 산행 ●●●

인하대병원 당뇨병크리닉에서는 지난 5월 4일(일요일) 남한산성으로 제 6회 당뇨인 산행을 다녀왔다. 환자 및 보호자 50여명과 내분비내과 의료진 및 영양팀, 병원 산악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당뇨인 산행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숲 속을 걸으며 당뇨인 들의 당뇨병 관리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 날 산행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며, 주최해 주신 병원측에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간호부에서는 사랑이 있는 인하대병원이라는 주제로 '인하대병원 그림 그리기 대회'를 마련하여 입원중인 어린 환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같은 날 오후 3층 강당에서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영상음악회가 개최되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영상과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었다.



향기로운 문화공간 마련 ●●●●

병원 2층에 상설 미술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내원객 및 직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석영희 작가님의 비구상작품이 전시되었고, 5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인천해오름회 초청 전시회가 진행된다.

제 1회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노동문화제 개최 ●●●●●

5월 22일 응급의료센터 앞 주차장에서 제 1회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노동문화제가 열렸다. 식전행사로 품바공연, INDKY 인하대그룹사운드의 공연이 흥을 더했고, 박승림 병원장의 축사에 이어 노동조합 활동보고 및 위원장상, 모범 조합원상 상상이 있었다. 이후 직원들의 장기자랑 등 흥겨운 노동문화축제의 장에서 노사가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홈페이지 www.inha.com >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1. 행사 내용



☆유방암 공개 강좌 및 작은 음악회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병원 3층 강당에서는 조영업 교수의 '유방암과 유전자'를 주제로 한 강의와

한국인 유방암 유전자 연구(KOHBRA)소개가 있었고, 서구 농협 풀빛여성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120여 명의 환우 및 보호자들이 참석하여 유전자에 대한 강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풀빛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에 암치료의 고통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5월 16일 인천대공에서 파랑새 체육대회 개최

푸른 5월 산기슭에 자리 잡은 인천대공원에서 그 동안 쌓였

던 마음의 짐을 내려 놓고 뛰고, 웃고 노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130여 명의 환우와 가족들이 맛있게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동일한 아픔과 질병의 공포를 극복하고 위로 받는 시간이 되었다.

2. 행사 계획

☆제 1회 유방암 환우 걷기 대회

일시 : 6월 9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강남구 양재천

주최 : 한유연(한국유방암 환우회 연합회)

▶ 전국 1,000여명 참석예정

☆강화군민 및 유방암 환우를 위한 유방공개강좌

일시 : 6월 14일 토요일

장소 : 강화군 보건소 강당

내용 : 유방암 예방과 조기 치료, 대체요법, 암과 식이

주최 : 인하대병원 여성암센터

▶ 강의와 개인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원 봉사 안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의 이용, 미용을 해주실 봉사자님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더해져 병원생활과 질병으로 지친 환자분들이 상쾌한 기분과 건강을 되찾으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이용, 미용 기술을 갖추고 이 뜻 깊은 일에 동참하여 사랑나누기를 해주실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자원봉사자 신청 및 문의]

● 담당자 : 원공주, 신소영 ☎032-890-2873

● 이메일 : volunteer@inha.com

퀴즈 퀴즈 제43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1** 밤샘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밤샘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 ② 밤샘은 기억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③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신체 성장이 저해되지만, 보상수면으로 성장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반복적인 수면 박탈은 장기적으로 비만을 초래하고 나아가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 2** 인하대병원 진료과 및 센터의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은?
- ① 사이버나이프 센터 — 지하 1층
 - ② 산업의학과 — 1층
 - ③ 통증클리닉 — 5층
 - ④ 소화기센터(소화기내과, 내시경실) — 3층

3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 등 경인지역의 7개 종합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에서 평가항목 전 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전국 8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올해 의료기관 평가에서 인하대병원과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명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7개 병원을 15개 평가부문 최고 등급 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원 | 고 | 모 | 집 ❖

원보 인하대병원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진지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E-mail : inhapr@inha.com
 ■보낼 곳 : 대외협력실
 ☎ 032-890-2603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김필립 | 대외협력실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보현팀

독 자 엽 서

보 내 는 사 람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7. 07. 09 ~ 2008.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는 사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대외협력실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인사동정

보직임명

●의료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관리담당 겸직	김인용
산업의학과 관리담당 겸직	심학수
건강증진센터 관리담당 겸직	윤동훈

●부속병원

특수간호팀장	이윤경
병리과기사장	이혜숙
동 11병동 간호단위책임자	이순주
동 7병동 및 분만실 간호단위책임자	김순희
동 10병동 간호단위책임자	김영신
물류팀 중앙공급실 간호단위책임자	정미경
동 8병동 간호단위책임자	김미정

임명

●해외환자전담코디네이터

원무보험팀	석현숙
외래간호팀	원지현
건강증진센터	이유진

신규임용

일반의	산업의학과	한승필
-----	-------	-----

신규채용

●의료원

대외협력실	김필립
-------	-----

●부속병원

병동간호팀	박부영, 강신애 박초아, 정슬기 전하나
-------	-----------------------------

특수간호팀	박미연, 홍두리 박세리, 김지원 송수경, 전인화
-------	----------------------------------

외래간호팀	차우정, 신아름 이선화
-------	-----------------

전근

●의료원

기획조정팀	안중식, 박재현 박연석
-------	-----------------

영종메디컬센터개원추진본부	이경수
---------------	-----

●부속병원

교육수련부	김경미
노사협력팀	황유석
물류팀	신동길
의료정보팀	한은영
의용공학팀	한은정
적정진료실	이우진
총무팀	김명환

병동간호팀	고국진
특수간호팀	김숙희
외래간호팀	임지은, 조화연 송호숙, 원지현

모범직원표창

교육수련부	신승호
"	노효근
"	조태진

외래간호팀	조옥자
"	이민아
"	강미영

병동간호팀	김미진
"	이승순
"	김미옥

감염관리실	김수미
특수간호팀	이효심
"	박은영

방사선종양학과	허현도
핵의학과	표성재
영상의학과	허만정

임상시험센터	오장열
총무팀	박현국
원무보험팀	하은영

이달의 친절직원

4월 시설관리팀	김순덕
5월 병동간호팀(서9병동)	이수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Quiz 정답

1

2

3

♣ 제42회 QUIZ 정답

- ① 1
- ② 답없음
- ③ 층분리배양법

♣ 당첨을 축하합니다

- 최화숙 동12병동
- 정혜림 동12병동
- 오윤희 인천 서구 석남동
- 이은영 인천 남구 율현 5동
- 이현정 인천 남구 송의 4동



인하중앙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885)
- ▶ 무통장 입금 : 거래은행 예금주 : 인하대병원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08년 5월 31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21명	446,662,848원	304,471,335원	

◎ 기부자 현황 | 2008년 3월 1일 현재 ~ 5월 31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고
'08. 5. 9	간호부 (김나영, 고국진, 배수영, 서건선, 박윤경, 조의영, 오제연, 박혜옥)	200,000원	인천광역시 간호사회 주최 간호연구논문 공모 격려상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3시~4시 30분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무료공개 강좌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5월 28일(수) 오후 3시	'발달이 늦은 아이' 의 조기진단과 치료	재활의학과	김명옥
6월 24일(화) 오후 3시	청소년 발달 및 건강검진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7월 08일(화) 오후 3시	소아의 만성기침	소아청소년과	김정희
7월 29일(화) 오후 3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이비인후과	양태용

● 강의일시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후 15:00 ~ 16:00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032)890-2114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순환기내과 (☎2200)	이우형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 금	화	심장혈관센터 (☎2440~1)	감염내과	정문헌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목	화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낭질환	화, 목	월		이진수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수, 금	월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월, 수	목		류마티스내과 (☎2219)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류프스	화, 수, 목	월	
	김대혁	*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금	월, 수, 목			권성렬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금	화, 수, 목	
	우성일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목	수, 금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화, 수, 목		
	최응길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금			김영욱		관절염, 척추염, 통풍	금	월, 화, 수	
	김수현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일 반			금		
일 반			수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월, 수, 목		내시경센터 (☎2540~1)	알레르기내과	김철우	*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목	월	
	신용운	*	소화관질환, 위·대장질환	월, 금	수		일 반			금	화		
	이돈형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월		내과계일반	일 반		전체적인 내과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형길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수, 금	월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목	
	권계숙		해위연수(2007. 10 ~)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목	월	
	이진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목, 금	화, 목			홍기천	*	혈관외과	화	목	
	정 석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월, 화	목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목	화	
	이정일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화, 수	수, 금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수) (목)			
	박정엽		치료내시경, 소화관질환	수	화, 금		박지중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월)	(월)	□여성암센터	
	박현주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수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암모듬 시술	
	최윤아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금	화		
김철현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최성근		해위연수(2007. 8 ~)						
손동욱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최윤미	*	소아외과	금	월, 수				
김희구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윤민영		대장항문질환		수				
최재로운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최소영		유방, 내분비외과	월	(수)				
					박정미		유방, 내분비외과	화					
					강규철		소화기외과, 위암	수	금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월, 금	흉부외과 (☎2280)	김광호	*	폐질환, 식도질환, 다한증, 기흉	화, 목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금	수		백완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금	화, 목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수	월, 목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윤용한	*	폐, 식도, 다한증, 기흉	월, 수, 금			
내분비내과 (☎2216)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화, 금	월 (수), 목 (금)	*당뇨병클리닉 *임상시험센터 *갑상선초음파 *여성암센터 *IMT검사 혈액투석진료	신경외과	박중운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월 (화), 수 (목)	(화), 수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홍성빈		해위연수(2008. 2 ~)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인면경, 3차신경증, 소아	월, 수	월, 수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화), 목 (금)	(화), (목)		박현선	*	뇌종양, 경막하혈종,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목)	(목)	뇌종양, 인면경증, 상악신	
	오윤주		당뇨병, 내분비, 갑상선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금	화, 금	중풍클리닉 운영, 수외과	
신장내과 (☎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화, 목		장형외과 (☎2380)	박승림	*	척추디스크 질환, 척추관협착증, 골절, 척추 및 사지	목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수, 금	월		오인석	*	슬관절, 인공관절, 슬관절, 족목 관절, 스포츠의학	월, 수	수		
	송준호		해위연수(2008. 2 ~)				문경호	*	인공관절, 인공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이승희		신장질환		화, 목, 금		김명구	*	스포츠의학, 슬관절, 인공관절, 인공관절, 관절염	월, 수	수		
신장이식클리닉	김문재	*	신장이식	화		강준순	*	인공관절, 인공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김서섭	*	슬관절, 견관절, 스포츠의학, 관절염	목	화, 목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화, 금	수			
신장센터 (☎ 2533)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이동주	*	수부, 상지, 종양, 관절염	화, 금	월			
	송준호	*	해위연수(2008. 2 ~)			강석봉		척추		금			
	김철수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월, 수	월, 수	이 문		슬관절, 견관절		월			
혈액종양내과 (☎2219)	이문희	*	종양학, 혈액학, 골수이식학	수, 목	월	친자확인	정새롬		인공관절, 인공관절, 슬관절		목		
	이현규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화	수, 금		일 반				목, 금		
	김진수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화, 금	목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선천기형, 미용	화, 목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분자유전학	목, 금	화			권수성	*	머리카락, 눈물 및 사지 재건, 인공관절, 미용	월, 금	수	
	김철수	*	혈액종양, 골수이식	화, 목				황진희		손외과 및 미세수술 화상, 미용	수	월, 금	
이문희	*	혈액종양, 골수이식	월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진료는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진료일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진료일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피부과 (☎2230)	최광성	*	연일 조깅용,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과, 레이저, 비행	월, 화, 목	월 (화), 목	스피레이저클리닉	정신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일중장애,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조율병클리닉		
	신정현	*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색소질환, 레이저, 두드러기, 피부미용	수, 금	월, 화, (금), 목			김철웅	*	년성 정맥혈전, 외상성관절염, 팔꿈치, 조장신병	월, 목	수, 목	조장신병클리닉		
	이현숙	*	건선,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화, 금	(수), 금			이정섭	*	소형신경질환(척추, 환상, 주위령, 연하, 이소장애)	월	화, 목, 금	혈액콜라겐형성클리닉		
	이승규	*	모발, 모발이식, 피부미용외과	목	수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목	월, 수	노인치매클리닉		
	일 반			월, 수	(월), 수, 목			선우영경	*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수	월, 금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상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화, 금	화	결핵은 무조건 (U)	신경과 (☎3880)	하충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박원희	*	요실금, 중앙, 전립선질환	월, 수	수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금	화, 금	뇌졸중클리닉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월, 목	목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수, 금	화, 수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심도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윤창호	*	간질, 수면장애	월, 목	월, 목	수면클리닉		
	이택	*	배뇨장애, 소아비뇨, 여성요실금	목	월, 목			송은철	*	말초혈관	월, 목	월, 금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수	월, 수	일 반			월, 화, 수, 금							
산부인과 (☎2270)	이유영	*	부인과중앙	화, 목 (금), (수)	(수)	□여성암센터	재활의학과 (☎2480)	정한영	*	뇌졸중(중풍), 소뇌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수	뇌卒中마비클리닉		
	이병익	*	중앙학, 불임, 폐경기	수, 금	월, 목			김찬환	*	근골격계통증(요통, 요실금), 말초신경병변	화, 수	목, 금	*언어장애		
	임문환	*	주산기의학, 초음파	화, 목	월, 화			김영옥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화			
	송은섭	*	부인과중앙	월 (화), (수)	금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금	만15세이상 진료가능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화), (목), (금)	화			여성암센터 Eurosio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	가족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수, 목, 금	건강진단센터
박지현	*	주산기의학, 산과초음파	월, 수	수,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유영	*	부인과중앙	금	수	국제클리닉(☎2455)	통증치료실 (☎3921)	이두익			*	통증치료	화			
송은섭	*	부인과중앙	화, 수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월, 목				고희창			*	통증치료	목	화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화, 수, 목				일 반			수, 목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월			영상의학과 (☎2740)	방사선중앙학과 (☎3070)	조순규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최소영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수	전용선	*			중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홍성빈	*	해외연수(2008. 2 ~)			노준규	*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비뇨기암	화, 목, (금), (수)	월 (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화		김우철	*			소화기암, 부인암, 혈액암, 뇌암, 소아암	화, 목, (금), (수)	월 (화), 목	최대한 확대 진료			
김윤정	*	유방방사선학	화, (수), (목)	(수), (목)	김한정	*			비뇨기, 갑상선, 항생종양, 소아암, 두경부암	월, 수	(화), (수), (목), (금)				
소아청소년과 (☎2260)	손병관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수	만5세까지 소아과로	사이버 나이프 중앙학과 센터 (☎3076)	노준규	*	노종양, 뇌혈관기형	금	화			
	홍영진	*	심장, 감염	목, 금	월			김우철	*			화	월, 목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목			김한정	*			화	목		
	전영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월	화, 수, 목			박현선	*	노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수	월, 목			윤승환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수, 금	수, 금			
안과 (☎2400)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수	화, 금	라식클리닉	해익의학과 (☎3160)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수, 금	월, 수, 금			
	권영세	*	해외연수(2007. 9 ~)					산업의학과 (☎2861)	치과 (☎2470)	임중환	*	환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질환, 고압제	화, 목	화, 목	
	이지은	*	신장, 내분비, 유전질환	화, 목	수, 금					박신규	*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화, 목	월, 금	
	강성길	*	소화기, 소아내시경	월, 목 (금), (수)	(월), 화, 금					김한철	*	작업성질환, 근로자건강증진	수	수	
	안소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월					김일규	*	구강 악안면외과	월, 화, 수, 금	화, 목	인공치아클리닉
일 반			수, 금		오남식	*	보철과			화, 금	월, 화, 목, 금				
안과레이저(☎2400)	EYAL	*	레이저 클리닉			코성형 : 수요일	응급의학과(☎2301)	장금수	*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금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이언화	*	교정과	월, 금	화, 수, 금		
		김영모	*	두경부종양(목), 음성언어(편도X)	화, 목				송경화	*	보존과	화, 수, 목	월, 화, 목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수, 금			화	최돈옥	*	소아치과	월, 수, 목	월, 수, 목		
		최호석	*	중이염,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월			수,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양태용		*	이과, 비과, 두경부	월	금										
김보묵	*	이과, 비과, 두경부	금	목											
한길수	*	이과, 비과, 두경부	화	금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Cyberknife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 무혈 '로봇 사이버나이프'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란?

유럽,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실시간 종양 추적 조정밀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가능한 질환

| 뇌종양 |

악성뇌종양 : 전이성 뇌종양, 다발성 뇌종양
양성뇌종양 : 청신경초종,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뇌하수체종

| 체부종양 |

전립선암, 폐암, 간암, 췌장암, 소화기암, 유방암, 부인과암(자궁암, 난소암), 비뇨기계암 등 척추종양, 전이성 척추암, 원발성 척추암, 수막종, 척추신경초종

| 두경부종양 |

갑상선암, 안와종양, 상악동암, 비 인강암, 뇌기저부 종양

| 뇌신경, 혈관질환 |

뇌동맥맥기형, 해면혈관종, 삼차신경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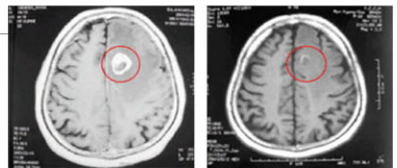
| 정신과질환 |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이외에 재발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다발성 종양, 기존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종양 등 다양

뇌종양

뇌실질 정상 조직은 피하면서 종양에만 정밀 방사선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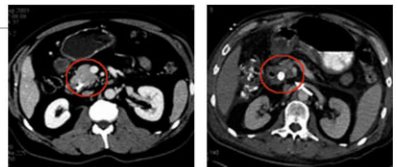


▲ 치료전

▲ 치료후

췌장암

췌장은 주변에 피해야할 중요한 기관들이 많으므로 로봇 수술이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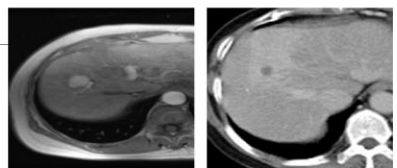


▲ 치료전

▲ 치료후

간암

간기능 보존 치료



▲ 치료전

▲ 치료후